〔실무수습기-국방부〕

군법무관은 새로운 기회이다

이 경 문

- 경동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Ⅰ. 시작하며

실무수습을 마친지도 거의 한 달이 되어 벌써 개강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느 방학보다도 이번 겨울방학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던 중 동기로부터 실무수습에 대한 후기를 써볼 생각이 있는지 제의를 받게 되었고, 군법무관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과 지난 방학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방부 실무수습 지원공고를 접했을 때는 순환근무에 대한 부담과 엄격한 규율아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군법무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지원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 미필이라 법무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군사 관련 계약이나 조달계약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터라 미리 법무관의 생

활과 군수산업 관련 업무와 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습을 마치고 난 후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군 법무관이라는 직업이 다양한 직역을 경험해볼 수 있고, 폭넓은 자기 계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기를 통해 법무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Ⅱ. 선발절차

1. 실무수습 선발절차 및 기간

이번 국방부 겨울 실무수습은 국방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에서 선발하여 국방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데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었고 신상정보 및 육군 본부 같은 다른 군 기관 수습경험 여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각 학교당 한명씩 선발되었고 성적보다는 지원동기를 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습은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군 검찰과 군사법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수습에서도 법무조직 및 업무 일반 1일, 군검찰단 3일, 군사법원 3일, 방위사업청 1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습은 서울 소재 로스쿨 생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숙소는 따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실무수습 사전준비

군사와 관련된 사법절차는 일반적인 법률절차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습을 하기 앞서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제10장 징계)등 관련 법률을 1독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관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따로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습과정 중 관련 법령을 참조하며 법적 쟁점을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법령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Ⅲ. 실무수습의 내용

수습 첫날, 무척 추운 날씨에 입구부터 서있는 헌병과 엄격한 출입통제를 보며

국방부에 온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확인을 마치고 법무관님께서 국방부 시설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고, 이번 수습이 이루어질 군사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 군사절차 일반 및 징계(1일차)

첫 시간은 일반적인 군법무관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기 군법무관은 변호사시험 이후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필기시험은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과 공법(행정법, 헌법)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유사하게 출제됩니다. 면접은 직무영역과 인성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직무영역의 경우 국가관, 안보관과 함께 법률적 지식을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학점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필기시험과 면접이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므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발절차 이외에 군법무관의 생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징계사건에 대한 케이스를 검토해보고, 관련된 법적 쟁점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군 간부들을 상대로 이전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경력을 모두 보고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사법과 형법을 통해 징계의 시효 도과여부 및 타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과거의 범죄 및 수사 경력'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 지시 자체의 타당성까지 논의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하며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군 검찰단(2~4일차)

검찰단 수습은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수사기법과 절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3일 동안 수사관님들께서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실제 수사절차에 대한 수업을 해주셨고 그 중 디지털 포렌식 실무 수업이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USB,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된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뜻합니다. 디지털증거의 경우 훼손과 은닉이 쉽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 수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업에서는 실제 어떻게 자료들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디지털증거의 경우 원본성을 담

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장치를 확보한 후 실제 이를 개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질문 구성방식과 사전면담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거짓말탐지기 실무와 압수수색과 같은 일반적인 수사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수사절차 실무 수업도 좋았습니다. 다만 작년 수습의 경우 실제 압수수색 절차에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3. 군사법원(5~7일차)

군사재판의 경우 1심은 각 부대 내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고, 국방부 군사법원은 2심기관으로 항소심만 담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 항소심 절차에 대해 주로 다루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법 하 부분을 공부하지 못해 강의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법무관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강의에서는 항소심의 속심, 사후심적 성격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일반 민사소송법적 내용과 함께 관련 판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 기록과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실제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헌병들이 법원 안을 지키고 있었고, 군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군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시작 전 법정 밖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국선변호인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4. 방위사업청(8일차)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따로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 날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률 자문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어 많은 사안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자문사례들을 다루며 단순히 현행법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결론 도출을 넘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Ⅳ. 군법무관의 생활

이번 수습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과 동시에 실제 군법무관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까지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군' 안에서의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다뤄볼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법무관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순환근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순환근무 때문에 군법무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년 내지 3년 근무한 후 근무지가 변경됩니다. 다만 현행 장기 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순환근무에서 생각하는 오지로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동안 만났던 법무관님들도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 대전 등에 계셨고 먼 곳으로는 가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관사가 제공되고,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폭 넓은 자기계발의 기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법률가로서 자기계발을 할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군 법무관은 첫 번째로 다양한 직무 영역을 다룰 수 있고, 두 번째로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며, 세 번째로 해외연수 프로그램 주어진다는 점에서 폭 넓은 자기계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 다양한 직무영역

군 법무관은 다양한 직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근무한 후 근무지를 변경할 때 군사법원, 군 검찰, 국방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은 행정 역할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통해 실제 소송절차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거나,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국가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직역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법무관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가로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2) 전문성 확보의 용이성

군사관련계약 절차나 업무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가액이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높습니다. 군법무관은 최소 10년 이상 군사관련절차

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갖기 어려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역 이후 율촌에서 공공조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원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셨던 박선기 변호사님 등 법무관님들은 전역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시장에서 군법무관은 다른 법조인과 차별화 되는 전문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폭 넓은 해외연수기회

마지막으로 폭 넓은 해외연수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군 법무관의 장점입니다.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 제도 발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유학 지원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차에서 7년차 정도에 다녀오게 되는데 L.L.M과정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노력에 따라 뉴욕 주 변호사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봉과 체제비가 제공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 로스쿨 과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법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고, UN이나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해외 업무를 다룰 수도 있어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Ⅴ. 마치며

수습 첫날, 잔뜩 긴장하여 저를 비롯한 수습생들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법무관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8일 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했고, 예능 진짜사나이에서처럼 px에서 먹거리 삼매경에 빠지기도 하며 즐겁게 수습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습기간동안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인솔 법무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일반적인 진로(판검사, 로펌 변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임관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직업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선발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잘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하여 로스쿨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경험해보고 제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추후 많은 분들이 군법무관 실무수습을 통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